



GILLETTE: 나의 회장님

GILLETTE AUDIO — PEPPE — GILLETTENARRATIVE.COM

회장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. 가라앉고 있었다. 말하지도, 바라보지도, 지시하지도 않았다.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. 가장 위대한 사람들조차 추위 속에 내버려진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날들 중 하루였다.

나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멋진 만남을 하나 주선했다 — 두 여자 친구. 그들은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왔다. 화장도, 도발도 없이.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. 마치 누군가 채워지기를 거부하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들을 거기 놓아둔 것처럼.

그는 돌을 들어 올리는 사람처럼 힘겹게 눈을 들어 나를 보더니,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: 저 사람들은 누군가, Nando? 나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. 그가 다그쳤다:

— “Nando... 자네 생각엔... 저 여자들, 매춘부인가?”

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. 아이러니도, 악의도 없었다. 오직 두려움뿐. 그저 혼자라는 느낌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내야 하는 남자가 되어 버렸다는 두려움.

그는 평생 여자에게 돈을 낸 적이 없었다 — 하지만 여자들 때문에 주머니를 텅 적은 많았다. 첫 번째 주머니: 권력을 나타내는 두툼한 지폐 뭉치. 나머지는: 잔돈,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— 나는 내가 고른 것에만 쓴다.

나는 천천히 다가갔다,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다가가듯이.

— “아닙니다, 회장님. 매춘부가 아닙니다.”

그는 침을 삼켰다,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.

— “그럼 뭔가?”

— “대역입니다, 회장님.”

침묵.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. 그러다 의미가 도착했다.

— “대역... 무엇의?”

— “회장님이 혼자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모든 것의 대역입니다.”

두 여자는 나를 바라보았지만, 눈을 내리깔지는 않았다. 그들은 받는다 — 언제나 — 하지만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.

그들은 유혹하러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. 블랙홀 하나를 메우려고 그 자리에 있었다.

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. 눈물 한 방울이 — 단 한 방울이 — 소리 없이 떨어졌다.

— “Nando... 나는 무너지고 있네.”

— “압니다, 회장님.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.”

그리고 그 순간, 단 1초 동안,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었다. 역할이 아니었다. 상징도 아니었다. 그 사람이었다.

「나의 회장님」의 그 사람.

안녕, Peppe